

하느님의 뜻

512. 설교하는 것보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이를 부활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엄청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513.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지어졌다고 생각했었지요. 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은 우리를 작게 하고 우리 존재의 차원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그분의 뜻은 우리를 크게 만들고, 넓혀주고, 충만케 하며, 조금은 하느님이 되게 해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찾다 우리 목숨을 잃는다 해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너무도 위대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모험은 자신에게서 비워지는 완전한 대체를 요구합니다. 생명과 생명, 뜻과 뜻의 교환을... 이 교환에서 손해 보는 일은 결코 없음을 알고 있는지요!

514.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뜻 안에서 형제들을 위한 사랑을, 그 형제들 눈동자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그들 영혼의 지성소 안에 간직된 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들은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님의 비밀들

을 모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대 영혼의 힘을 다하여 하느님의 뜻을 수호하십시오.

515. 가끔, 하느님의 뜻의 보이지 않는 진열장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영원의 차원을 가져다 주는 얼마나 깊은 비밀과 신비들이 거기 담겨있는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신비들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 뜻의 신비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작하기에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한 순간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역사 안에 성덕을 나누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질 것입니다. 오, 하느님 뜻의 신비여!

516. 하느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언제나 사랑하십시오. 하느님 뜻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517. 말뿐인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마지막 한 점까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대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에 대한 충실하고도 책임감 있는 응답을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영원하신 뜻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힘쓰십시오.

어떤 때, 우리는 정말 사랑에 인색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좀더 섬세해지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518. 네. 그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와 함께 계신 하느님은 지극히 무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가난함 속에 영원히 무한하신 분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대가 신비로운 당신 뜻의 살아있는 강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철저하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청하십시오.

519. 성덕에 이르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언제라도 하느님의 뜻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520.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이여! 저에게 무엇이든 다 청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뜻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잘 쓰십시오.

521.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사랑은 언제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입니다.

522. 하느님의 뜻에 대한 열정은 결코 소모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롭고, 젊고,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정은 매일매일 새롭게 탄생하고, 성장하며, 사랑의 산의 정상으로 영혼을 인도합니다.

523. 그대의 목마름은 절대자에 대한 열렬한 탐구와 날마다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 목마름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524. 침묵 속에 들으십시오. 관상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야훼의 목소리에 불길이 일고...” (시편 28,7). 이 불길이 - 믿기지 않는 역설이지만 - 그대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525.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스승의 눈빛에서 그 신비로운 뜻을 잃지 않게 하는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샘솟는 물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를 사는 법을 복음에서 배우십시오(요한 4.10-11, 14). 스승의 시선은 그대의 행동과 감각을 섬세하게 해주고 광야로 향한 그대 발걸음을 더 확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뜻을 찾으십시오.

526. 성녀 카타리나는 말합니다. “ 어떤 영혼이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표지는 그 영혼이 자기 방식이 아닌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십시오... 그 신비로운 뜻의 종이 되십시오. 내 자신의 뜻은 흔적조차 없이 그분 뜻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대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십시오. 어디까지가 그대의 뜻이고 어디서부터 하느님의 뜻이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의 뜻, 하나의 외침, 하나의 삶, 하나의 신비, 하나의 힘... 그대와 하느님은 오직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대에게 다가설 때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성녀 카타리나가 한 일을 그대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527.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드럽게 노력하십시오.

그대의 언행과 행동과 삶 전체가 온유함으로 점철되어 있고 다스려지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 신적 뜻에서, 영원으로부터 그대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528. 하느님 뜻의 신비는 헤아릴 수 없이 심오합니다. 이는 철저한 삶의 비밀을 간직한 깊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거기에서 물길을 찾으려 합니다.

순명은 확실한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사랑의 오솔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빛나가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느님을 향해 똑 바로 나아가십시오.

529. 하느님의 뜻은 먼저 영혼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하느님은 그대에게서 굳세고 성숙한 모습, 즉 자기 자신을 잃어 버리고 하느님의 뜻 안에 정박한 그대의 모습을 꿈꾸고 기대하십니다. 그대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를 비추는 영적 거인이 된 그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530. 그분이 죽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죽음을 원합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원하신다고요? 용감하게 받아들이렵니다. 이게 다 무슨 상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안에서 영원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변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531. 사랑으로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대를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또한 자신의 작음 안에 영원한 나라의 위대함을 간직했던 저 유다 소녀를 위한 신적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주님의 여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 계획의 살아있는 강생, 곧 저 거룩한 신적 뜻의 여종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언제나,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사십시오.

532. 하느님의 뜻은 성덕을 위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의 뜻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 존재 전체를 차지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에서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533. 하느님께 확실하게 투신할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길, 하루 또 하루 나를 성화시켜가는 주님의 길!

이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자신을 던지십시오. 이리로 가면 하느님께 도달합니다. 이 사랑의 길에서 하느님은 그대와 만나 주십니다. 시간 속을 살아가지만 이미 영원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534. 하느님의 뜻 앞에 언제나 열려있는 폭 넓은 안목을 갖추는 것은 참으로 심오한 일입니다. 가장 소소한 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 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입니다. 이 하느님의 "나"가 우리 존재의 마지막 숨결까지 채우고 우리 삶을 온통 차지해야 합니다.

535. 저 신비로운 뜻 안에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항상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십시오.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시오.

536. 그대 눈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하느님의 뜻이 그대의 전 존재를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산 위의 예수님, 그 산의 풍경을 묘사하고 싶으면 그대의 눈을 들여다 보면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을 비추어 주는 티없이 맑은 거울, 잔잔한 연못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살아있는 반영이 되십시오. 그대 눈으로, 몸짓으로, 존재로 하느님의 면모를 그려내십시오,

537. 하느님의 뜻을 마지막 한 점까지 사는 것. 하느님의 뜻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단 한가지, 오직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작은 일들 안에서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작고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오직 하느님만 보실 수 있게 말입니다.

538. 저의 가난은 겸손으로, 저의 무능력은 착한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악기는 가난하지만 항상 깨끗한 음만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연주하고 다른 곡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539. 그대의 삶이 기쁨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뜻의 씨앗을 그대에게 맡깁니다. 그대의 삶으로 그 씨를 뿌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십시오.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은 전달 방법이 없습니다. 하느님 뜻의 신비를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그대의 삶은 강한 전염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540. 나자렛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를 지향합니다. 하느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만이 나자렛의 구석, 구석을 이끄는 유일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 아름답고 신적인 사명의 삶을 재현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541. 하느님의 부드러운 손이 인도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룩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신성한 입김에 따라 가볍게 날아다니는 깃털 같이 그분의 가장 가벼운 암시에도 결코 저항 하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542. 오직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뜻만이 그대의 삶을 장악하도록 그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도 하십시오.

우리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

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의 뜻, 초라하고 약취를 풍기는 우리 뜻이 하느님의 고결한 뜻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는지요!

543.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두 눈을 감고...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 것도 모르는 채... 오직 당신의 뜻이라는 것만 알면 족합니다. 아는 것이 너무 적다고요? 예수님, 차라리 제 눈을 감겨주소서. 그리고 시작합니다.

544. 하느님을 만나, 그분을 알아 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을 청하십시오. 일상 생활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안에서 그분을 영하고, 그분께서 청하시는 모든 것을 봉헌할 줄 아는 맑은 눈을 하느님에게 청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봉헌한 다음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영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영하는 것, 이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영성체입니다.

545.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워진 삶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죽어가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는 일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사랑을 완성하는 일 외에 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46. 관상자에게 하느님의 뜻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나의 개인적인 뜻이 비집고 들어 올 수 있는 비상 밸브가 있는 것입니다.

547.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뜻 전부를 흡수하기 원합니다. 하느님

의 뜻이 그대의 뜻 위에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대의 완전한 성덕의 비밀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548.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며, 좋으신 우리 스승님께서 생명이 다하도록 사랑하신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우리 삶 속에 육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처럼 아버지의 뜻에 그대를 내어주고, 그대 자신의 뜻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이것이 하느님을 미소 짓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549. 자신의 뜻을 찾지 않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하느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구미를 찾지 않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앞에서 완고한 몸짓이나 반대 의견으로 저항하지 않고 아주 쉽게 조종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쉽거나 어렵거나 구미가 당기거나 따분한 것을 따지지 않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50. 모든 것이 작고, 모든 것이 가난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뜻만이 위대하고 또 작은 것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대 삶의 맥을 짚어보고 그대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551. 규칙서는 하느님께서 축성된 영혼들에게 손수 써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때, 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하느님의 신적인 뜻을 표시해주는 신적

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 점까지 이를 따라 갈 때, 성덕은 확실합니다.

552.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원한 뜻입니다. 우리 전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이것들만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의 한 부분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553.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신적 뜻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당신 성령의 의견의 은사는 하느님의 길을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우리로 하여금 용감하게 그 길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554. 하느님의 계획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는 일은 하느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며 교회에 생명을 주는 성령께서 맡아 하십니다. 나에게 하느님의 차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은사들로 내 영혼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활동하시는 이 은사의 작용을 방해하지 맙시다.